

1. 배우지 않아도 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욕”이지요.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던 더치 발음들도 욕만큼은 다릅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또 듣지 말아야 하는 말들임에도 그렇지요. 그래도 3 가지 정도 만큼은 아셔야 하겠습니다.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욕인줄은 아시라고!
2. 신약성경이 써여진 코이네 헬라어로 하는 욕으로, 첫째는 누군가를 “호 오르기조메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哼라카”, 셋째는 “모~레”입니다. “오르기조메노스”란,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자신도 모르지요.
3. “라가”는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하는 소리로 말이지요. 우리 말로는 “바보” 또는 “머리가 빙 녀석”이란 뜻입니다. 셋째는 “모레”입니다. 발음을 “모오레”라고 해야 합니다. 뜻은, 미련곰탱이, 혹은 순진한데 악한 자를 뜻합니다.
4.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걷다보면 적어도 3 가지 언어를 듣게 됩니다. 아랍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유대인들의 경쾌한 발음들, 그리고 만국공통어 영어지요. 특히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서면, 이 모든게 섞여버립니다. 이태원거리인지 시장통인지 분간이 안되지요.
5. 그때 그것을 뚫고 귓가를 스치는 욕이 하나 있습니다. “벤조나!”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듣는 첫번째 히브리어 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캐의 자식이란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숫자입니다. 암캐는 “조나”이고, 그 앞에 붙은 “벤”은 “벤허”에서처럼 그 자식이란 뜻입니다.
6.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목사란 작자가 욕을 가르치더라!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건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워지거든? 단 한 순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단어를 4 개나 외우도록 만들었어! 성령의 역사인지 듀오링고의 능력인지….”
7.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5 번째 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것인데, 그래서 바라기는, 이걸 배우시고, 앞서 말씀드린 4 가지 욕들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단, 뉘앙스만 남아서, 그것이 욕이라는 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마태복음 5:22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오르기조메노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哼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모오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했습니다.
9. 혹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들랑,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는 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데, 이로 인해 누군가는 고소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체포될 뿐 아니라, 감옥이나 심지어 지옥불에도 들어갈 것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10. 오늘 본문에는 욕 중의 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5 번째 욕이지요. 그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인데, 마태복음 3 장 7 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걸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cf.마 12:34).

11.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것입니다. “벤조나”는 암캐의 자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암캐” 자리에 “독사”를 대치한 것이지요. “γεννήματα ἔχιδνῶν” 게네마타 엑히드논” 지금 유행하는 현대 히브리어로, “알데이 찌포님!” 성경에 나온 욕들 중, 최종 결정판입니다.
12. 별씨 누군가는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그러나 예수님도 하신 욕이고, 또 세례 요한 마저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를 따른다는 우리가 그보다 나을 수는 없겠지요?
13. 요즘에는 욕먹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역풍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욕을 했다고 이성애자들이 감옥에 가지요. 망명객들을 대접한답시고 자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지요.
14.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은, 독사의 자식들(알데이 찌포님) 그 당사자들입니다. 왜 예수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가?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두고 “알데이 찌포님”이라고 욕하셨는가?가 관심이지요.
15. 세례 요한이 뱀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7)”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독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마저도 “알데이 찌포님”이라고 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벤조나! 모오래! 흥라카! 오르기조메노스!
16.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리석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지요. 이건, 아까 마태복음에서 만난 “라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보라고 욕한 것이지요. 그나마 바울 자신, 예수로부터 알데이 찌포님이란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화된 표현이 이렇습니다.
17. “호 아노에토스!” “노에토스”가 없는 자! 곧, “지능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그런 욕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그들이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8. 한 마디로 종로 한복판에서 눈뜨고도 코베임을 당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밝히 보이는데서! 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하겠냐?고 하시겠지만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게 되면, 누가 자신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해도, 변명하기 조차 부끄럽습니다.
19. 갈 3:2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묻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으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천당간다고 믿게 되었다는 소리지요.
20.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지요.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낸 것?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했던 것? 그런 것이라면 욕 들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적처럼,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세례라도 받아야 안심이 된다고 했다는 소리지요.

21. 그것이 요단강으로 달려간 것인 듯, 십계명의 제 5 계명을 지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인 듯 독사의 자식들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도가 바로 욕먹을 짓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알데이 찌포님!
22.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인들이 믿음 대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셨음을 믿는 것인지요. 다른 말로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찾으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그걸 믿지 않는 것인지요. 단지, 자신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되었건, 원수였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되었건, 가리지 않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24. 3 절,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육체로 마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려고 세례 요한이든 예수든 찾아나서는 일이지요.
25. 그래서 제가 간혹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천당하려고?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이 이미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육체로 마치려 하십니까? 알데이 찌포님!
26. 다시 한 번 알데이 찌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에 올라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듭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건 자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속에 살면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 올라온 세리를 향해 독사의 이빨을 드러내는 자들이지요.
27. 욕쟁이 예수께서 뱉어내는 이 욕이 여러분의 귓가에 스치기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알데이 찌포님!